

영어와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의 테너 (담화 참여자 관계) 분석*

이 창 수 **

차 례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IV. 데이터 분석 및 논의
- V. 결 론

1. 서 론

할리데이(M.A.K Halliday)는 텍스트를 둘러싼 상황 컨텍스트는 담화의 목적이나 주제를 뜻하는 필드(field), 담화자 간의 관계를 뜻하는 테너(tenor), 담화의 형태를 뜻하는 모드(mode)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요소는 텍스트에서 특정한 어휘문법 요소에 의하여 구현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컨텍스트는 문화라는 보다 큰 컨텍스트에 둘러싸여 있어 문화마다 상황 컨텍스트가 텍스트에 구현되는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주장한다(cf. Halliday 1985. "Language", Halliday & Hasan 1989).

본 논문에선 이러한 할리데이의 체계기능문법에 기초하여 영어권 관광안내

* 본 연구는 2008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주소: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270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전화: 02-2173-3149, 이메일: soolee@hanmail.net

텍스트와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테너가 텍스트에 구현되는 방식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저자와 독자간의 역할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할리데이의 체계기능문법

체계기능문법(Systemic Functional Grammar)은 기능주의적 언어이론의 대표적 이론으로 할리데이에 의하여 창시되었다(“Introduction”; “Language”). 할리데이는 그의 스승인 영국 언어학자 퍼쓰(John Rupert Firth)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외에 덴마크 언어학자(Louis Hjelmslev)와 프라하 학파(cf, Mathesius) 등 유럽의 언어학계의 영향을 받았다.

할리데이는 퍼쓰와 마찬가지로 언어와 컨텍스트의 체계적 상관관계를 강조한다. 즉,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해선 해당 텍스트가 위치한 컨텍스트를 알아야 하며 컨텍스트가 없이는 텍스트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퍼쓰는 말리오노브스키(Maljonowski “Problem”; “Coral”)의 용어를 빌려 ‘상황 컨텍스트(Context of Situation)’라고 명하였다. 할리데이는 ‘상황 컨텍스트’를 ‘텍스트가 전개되고 해석되어지는’ 환경이라고 정의한다(Halliday & Hasan 5).

퍼쓰(“Synopsis 177”)는 상황 컨텍스트가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1. 참여자(participants): 인물, 또는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
 - (a) 참여자의 언어적 행위
 - (b) 참여자의 언어외적 행위
2. 연관된 객체와 언어외적, 비인물적 사건(the relevant objects and non-verbal and non-personal events)
3. 언어행위의 효과

할리데이는 퍼쓰외에도 Hymes(55-60)의 S-P-E-A-K-I-N-G 모델을 참고하여 언어사용, 즉 담화(register)의 컨텍스트는 크게 담화의 장(Field), 담화 참여자간 관계(Tenor)와 담화의 방법(Mode)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시하였다(Halliday & Hasan, 12).

필드(담화의 장): 참여자들이 참가하여 벌이고 있는 활동(what is happening)과 그런 사회 활동의 성격 (nature of social action that is taking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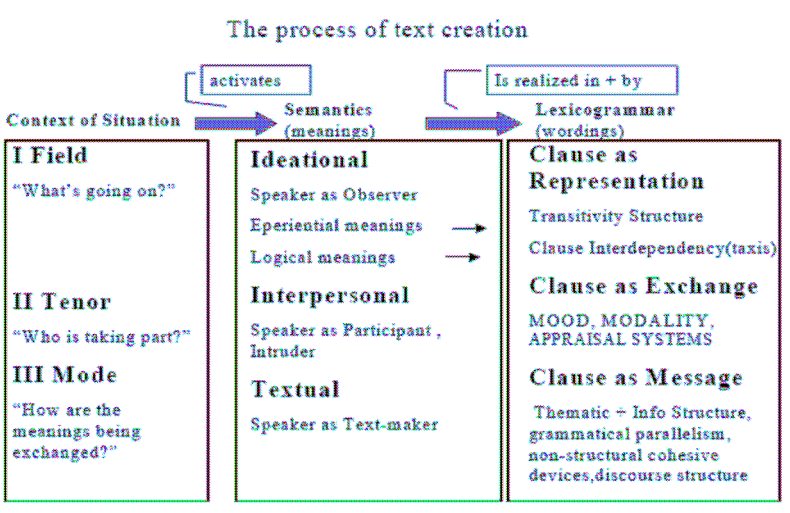
테너(담화 참여자간의 관계): 참여자들의 특성 지위, 역할(the nature of the participants, their statuses and roles), 영구적이고 일시적인 역할 관계(role relationships)

모드(담화의 방법): 언어가 수행하는 역할(what part the language is playing), 채널(channel) 및 수사학적 방법(rhetorical mode)등 컨텍스트 내에서의 텍스트의 상징적 조직(symbolic organization of the text), 지위(status) 및 기능(function)

이러한 담화의 3요소는 언어의미 차원에서 경험적(experiential), 대인적(interpersonal), 텍스트적(textual) 기능이나 의미를 활성화시킨다(Halliday & Hasan, 25). 경험적 의미란 우리 내부세계나 외부세계에서의 경험을, 대인적 의미는 담화 참여자간의 사회적 역할, 성격, 감정을 그리고 텍스트적 의미는 메시지로 기능하기 위한 텍스트의 짜임을 의미한다(Halliday “Language” 36).

이러한 언어의 3대 의미는 다시 텍스트 차원에서 어휘문법적 요소(lexico-grammatical features)에 의하여 구현된다. 구체적으로 도표1에서 보듯 경험적 의미를 텍스트에 구현하는 어휘문법 요소들로는 동사성(transitivity) 및 절의 상호의존적 관계(taxis), 대인간 의미는 서법(mood), 양상(modality), 평가어(appraisal)등이 있으며, 텍스트적 의미는 주제구조(thematic structure)와 결속 요소(cohesive device)등이 있다

도표. 1 텍스트 형성 과정(Lipson 13)



이와 같은 텍스트→의미층→상황 컨텍스트의 관계를 외피에서 둘러싸고 있는 또 하나의 컨텍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문화 컨텍스트(context of culture)이다. 문화 컨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장르'란 형태로 존재하며 상황 컨텍스트가 언어에 구현되는 전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Eggins 34). 할리데이는 문화-상황-텍스트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Any actual context of situation, the particular configuration of field, tenor, mode that has brought a text together into being, is not just a random jumble of features but a totality a package, so to speak, of things that typically go together in the culture. (Halliday & Hasan 46)

이는 상황 컨텍스트가 텍스트에 구현되는 과정과 요소는 문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황 컨텍스트의 3요소 중 본 논문에선 테너와 텍스트의 관계를 분석할 것

이므로 이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Halliday에 따르면 대화란 특정한 담화역할(speech role)을 맡은 대화자 간에 재화(commodities)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이다. 가장 기본적인 담화역할은 ‘주기(giving)’과 ‘요구하기’(demanding)이다. 그리고 이러한 담화역할 간에 교환되는 재화는 ‘정보’(information)와 ‘물품 및 서비스(goods & services)’로 나뉜다(Halliday “Introduction” 68). 가령, “We’re almost there.(거의 다 왔습니다)”란 말은 정보를 주는 행위이며 “What day of the week is today?(오늘 무슨 요일이에요?)”라는 질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에 반해 “Would you like a piece of cheesecake?(치즈 케이크 한 조각 드시겠어요?)”는 상대방에게 물품을 제안하는 행위이고, “Please close the door.(문 좀 닫아주세요.)”는 행동(즉, 서비스)을 요구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담화역할과 교환되는 재화를 양 축으로 해서 연결하면 표1에서 보듯 4개의 담화기능(speech function)을 분류해 낼 수 있다.

표1 담화 역할과 교환 재화에 따른 담화 기능(Eggins 150)

담화역할	교환되는 재화	
	정보	물품 및 서비스
주기(Giving)	진술(statement)	제안(offer)
요구하기(Demanding)	질문(question)	명령(command)

그런데 이렇게 정보와 물품 및 서비스를 주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문법차원에선 서법체계(Mood System)와 연관이 있다. 위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진술은 평서문(declarative), 질문은 의문문(interrogative), 제안은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문(modulated interrogative), 명령은 명령문(imperative)의 형태로 구현된다. 이러한 무표적 선택 외에 유표적 선택도 있다. 진술은 꼬리말 평서문(tagged declarative)으로 표현될 수 있고 질문은 조동사를 사용한 평서문, 제안은 명령문이나 평서문, 명령은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평서문(modulated interrogative declarative)으로 표현될 수 있다(Eggins 153).

표2 담화기능과 서법 선택(Eggins 153)

담화기능	전형적 서법	비전형적 서법
명령	명령문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평서문
제안	조동사를 사용한 의문문	명령 평서문
진술	평서문	꼬리말 평서문
질문	의문문	조동사를 사용한 평서문

테너를 텍스트에 구현하는 또 다른 어휘문법 기제는 양상이다. 정보를 주고 받는 진술이나 질문은 명제(proposition)의 교환이며 명제의 기본적 의미는 ‘그렇다’는 주장(asserting)과 ‘그렇지 않다’는 부인(denying)이다. 그러나 이런 양극(polarity) 사이에 명제에 대한 확신과 빈도를 표현하는 중간 가치들이 존재한다. 가령, 명제를 표현하는 평서문에 perhaps / possibly / certainly와 같은 양태부사를 첨가함으로써 확신(certainty)의 정도를, sometimes / usually / always와 같은 양태부사를 첨가하여 빈도(usuality)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확신과 빈도의 정도를 표현하는 어법을 양태서술(modalization)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명령이나 제안은 기본적으로 제의(proposal)의 교환이며 여기엔 ‘하라’는 지시(prescribing)와 ‘하지 마라’는 금지(proscribing)의 양극이 존재한다. 그러나 명령에선 allowed to / supposed to / required to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양극 사이에서 의무(obliation)의 정도를, 제안에선 willing to / anxious to / determined to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의향(inclination)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무나 의향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을 변조서술(modulation)이라 한다(Halliday “Introduction” 86).

양상은 기본적으로 “That’ll be John.”과 같이 조동사(modal operator), “That’s probably John.”과 같이 양태부사(modal adjunct)와 “That’ll probably John.”과 같이 조동사와 양태부사를 혼용한 형태로 표현된다(Halliday “Introduction” 86). 여기에 덧붙여 “It’s possible that that’s John. I guess that he’s John.”처럼 양상의 의미를 복합절의 주절에 표현하는 방법, “In all likelihood, he’s John.”과 같이 전치사구로 표현하는 방법, “The likelihood of

his being John is very great.”과 같이 명사구로 표현하는 방법 등이 있다. (Halliday “Introduction” 332-341)

이러한 양상의 사용은 화자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당위성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commitment)하며 그 말에 나타난 태도에 어느 정도까지 책임(responsibility)을 질 것인가를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Thompson 68).

2. 관광안내텍스트의 특징

관광안내 텍스트라 하면 관광안내책자, 브로셔, 잡지, 웹사이트 등에 실린 텍스트로 말 그대로 ‘관광지를 안내하는 내용의 텍스트’를 일컫는다. 그러나 이런 매체에 실린 모든 텍스트를 ‘관광안내 텍스트’라는 하나의 장르로 묶기에는 실제 텍스트 간에 텍스트의 목적과 구조에서 차이가 많다.

Swales(9-10)는 장르를 ‘분명한 의사소통 목적(communicative purpose)을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의사소통 목적은 장르를 구별하는 가장 ‘원초적인 기준(prototypical criterion for genre identity)’이다. 즉, 의사소통 목적을 공유하는 의사소통 사건들의 묶음이 곧 장르란 것이다(Swales 46).

관광안내 텍스트의 일반적 의사소통 목적이라면 독자에게 해당 관광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여 실제 방문해보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ann(2)에 따르면 관광 언어(language of tourism)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고 유혹하여 잠재적 고객에서 실질적 고객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관광안내서는 Katharina Reiss(1977/89)의 ‘정보형(informative)’, ‘표현형(expressive)’, ‘작용적(operative)’, ‘오디오미디어적(audio-medial)’ 등 4개의 텍스트 유형 중 ‘작용적 텍스트’로 분류되기도 한다(Snell-Hornby 95).

작용적 텍스트는 독자에게 호소적(appellative)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호소적 기능을 통하여 작용적 텍스트는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설득한다(Munday 73). 이런 호소적 기능을 담은 가장 대표적인 작용적 텍스트는 광고문으로 독자들의 충동(impulse), 반응(reaction), 행동

(action)을 유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Becher, 78) 관광안내 텍스트도 그러한 목적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관광안내 텍스트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관광안내 텍스트에는 관광지의 역사, 지리, 인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안내 텍스트는 정보형 텍스트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안내 텍스트는 작용적 텍스트와 정보형 텍스트가 혼합된 ‘하이브리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광안내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다기능적인 텍스트이지만 텍스트가 실린 매체의 발간 목적에 따라 가장 중요한 텍스트의 기능이 있게 마련인데 Hatim & Mason은 이것을 텍스트의 ‘컨텍스트 초점(contextual focus)’이라고 칭한다.

although we recognize multifunctionality as an important property of texts, we submit that only one predominant rhetorical purpose can be served at one time in a given text. This is the text contextual focus. (146)

이런 관점에서 관광안내 텍스트는 비록 정보기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컨텍스트 초점에선 관광지에 관한 독자의 관심을 유발시켜 실제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 중심형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상기 2장 1절에서 담화 컨텍스트의 3요소인 필드, 테너, 모드가 언어의미 차원에서 경험적, 대인적, 텍스트적 의미를 활성화하고, 각 의미는 다시 텍스트 차원에서 특정한 어휘문법 자원에 의하여 구현되는 관계를 설명하였다. 또한 이런 ‘상황-의미-언어자원’간의 관계는 보다 큰 범주의 문화 컨텍스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에선 관광안내 텍스트의 상황 컨텍스트가 텍스트 차원의 어휘문법 체계에 구현되는 과정에서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 규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런 연구목적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두 언어로 쓰여진 관광안내 텍스트 간에 서법(mood)과 양상(modality)의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담화자 관계가 텍스트에 반영되는 과정을 비교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위한 데이터 분석 자료로는 영어권 관광안내 텍스트의 표본으론 캐나다 관광청(Canada Tourism Commission)에서 발간한 *Canada Travel Guide 2006/7*(사진 1),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 표본으론 충청남도 도청이 발간한 관광안내책자인 『자, 떠나자 충남으로』(사진 2)를 선택하였다.

사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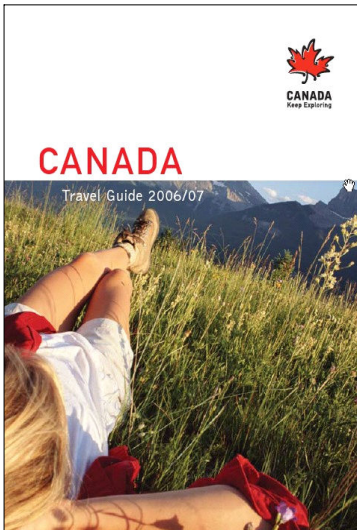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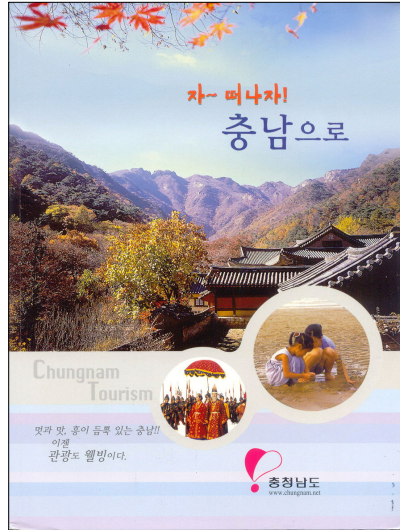


사진 2



두 책자는 각 문화권의 관광안내책자라는 장르 표본으로서 동일한 상황 컨텍스트를 갖고 있다. 먼저 두 책자 모두 정부기관이 발행했다는 점과 해당 지역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드(텍스트의 목적과 주제)가 일치한다. 또한 브로셔 형태의 글문을 매체로 한다는 점, 글과

함께 관광지 천역색 사진이 실려있는 다매체 텍스트란 점, 그리고 관광지 별로 장을 나눠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 등 매크로 텍스트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모드에서도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또한 테너도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저자와 이를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 사이의 관계란 점에서 일치한다.

IV. 데이터 분석 및 논의

1. 데이터 분석 결과

캐나다 관광안내서는 페이지 분량이 92페이지에 달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분석하지 않고 처음 표지 광고 목차 부분을 제외하고 3에서 10페이지까지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주어 동사가 없는 불완전 문장(minor clause)(Eggsins 152)을 제외한 총 문장 수는 55개였다.

충청남도 관광안내책자는 영어 표본과 분량을 맞추기 위하여 책 앞부분의 표지와 화보를 제외하고 13에서 27페이지까지의 문장을 조사하였고 총 문장 수는 53개였다. 문장 분류에서 영어의 and, or나 우리말의 ‘하며’, ‘-하고’와 같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동등한 절은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 계산하였다.

양 표본의 서법 분포는 영어의 경우는 55개 문장 중 평서문이 33개, 명령문이 21개, 의문문이 1개로 조사되었다. 한국어의 경우는 53개 문장이 전부 평서문이었다.

표 3 영어와 한국어 표본의 서법 분포

	총문장수	평서문	명령문	의문문
영어	55	33 (60%)	21(39%)	1(1%)
한국어	53	53 (100%)		

양상의 경우 양 표본 모두에서 의무나 의향을 표현하는 변조서술의 예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양태서술의 경우 화자의 확신을 표현하는 양상이 평서문

에서 영어는 2번 한국어는 1번 사용되었다.

그러면 각 언어별로 이와 같은 서법 및 양상의 분포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2. 영어 관광안내 텍스트

먼저 평서문의 분포 의미를 살펴보자. 앞에서 평서문은 기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담화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였다. 평서문이 조동사와 함께 쓰여 제안, 명령, 질문의 담화기능을 표현할 수 있지만 본 연구 데이터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평서문이 하나도 없었다. 즉, 33개의 평서문 모두 정보 제공 기능을 하는 서술문이었다. 특히 그 중 22개가 예문 1와 같이 be동사로 이루어진 관계프로세스였다. 관계프로세스는 문장의 주어의 정체를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전형적인 서술형 문장으로 특히 정보성이 매우 강한 문장이다(Thompson 96).

예문 1

Stretching from the Pacific to the Atlantic and deep into the Arctic, Canada **is** a big country with a multitude of places to experience.

따라서 관광안내 텍스트의 평서문은 저자가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담화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 교환되는 재화는 정보이고 저자와 독자는 ‘정보 제공자’와 ‘정보 수혜자’란 역할관계를 갖고 있다.

33개의 평서문 중 양상이 사용된 문장은 예문 2에 나와 있는 2개뿐이고 나머지 31개는 ‘이다’-‘아니다’는 양극가치를 담고 있다. 즉, 거의 대부분의 문장에서 진술은 단정적이다.

예문 2

(a) In fact anywhere in the wild there **could** be a bear just around the corner.

(b) Bears are **probably** the most sought after wildlife in Canada.

이렇게 양상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대부분의 문장이 단정적이란 점은 저자와 독자간의 파워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Eggins(193)는 대화에서 파워의 가장 극명한 지표(most striking indicator)는 누가 발화를 시작하며 얼마나 오래 화자의 역할을 맡는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Eggins는 그 예로 수업시간의 선생과 학생의 관계를 들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수업시간 중 선생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화자의 역할을 독점하다시피 한다. 이것이 학생에 대한 선생의 절대적 파워의 확실한 지표라는 것이다.

책이란 텍스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저자와 독자의 대화에선 이러한 파워관계가 더 절대적이다.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자의 역할(speaker role)을 맡고 독자는 청자의 역할을 맡는다. 이러한 역할의 불균형은 저자와 독자간에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처럼 파워의 불균형을 낳는다. 그와 더불어 주제 지식 면에서도 저자는 '전문가' 입장에서 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Eggins 314).

독자 입장에선 저자의 파워와 권위의 우위는 저자에 대한 신뢰로 연결된다. 독자는 자신이 읽는 관광안내 텍스트에 담긴 정보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관광안내 텍스트의 저자가 양상을 빈번히 사용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나타낸다면 독자는 저자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독자를 설득하고 유도한다'는 컨텍스트 초점을 갖고 있는 관광안내 텍스트의 담화목적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번엔 21개의 명령문과 1개의 의문문의 의미를 분석해보자. 분석 자료에서 전체 문장의 38퍼센트에 해당하는 21개 문장이 명령문이란 점은 영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교환되는 재화가 단순히 정보만이 아니란 점을 보여준다.

예문 3

- (a) **Watch** rare birds soar through the sky or costumed dancers float across a stage.
- (b) **Laugh** your head off at a comedy festival or wash your cares away in a healing mineral bath.
- (c) **Experience** the cities of Vancouver and Victoria, world-class skiing in Whistler and incredible wildlife viewing.

- (d) **Rock climb** the face of the Stawamus Chief or one of the many other peaks in the mountain ranges.
- (e) **Don** wetsuit, mask and snorkel and **go** salmon snorkelling along the Campbell River

위 예문에서 볼 수 있듯 관광안내 텍스트 저자는 명령문을 통해 독자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동원되는 동사는 *watch*(보다), *laugh*(웃다), *experience*(경험하다)와 같이 주로 어떤 것을 ‘보고, 느끼고, 감상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적 프로세스와 *rock climb*(암벽 등반하다), *don*(옷, 장비를 착용하다), *go salmon snorkeling*(연어 스노클링 가다)와 같이 액션을 표현하는 물질적 프로세스들이다.

이런 명령문에서 저자와 독자 간에 교환되는 재화는 정보가 아니라 서비스(행동)이다. 그리고 이런 명령문을 통해 저자와 독자는 ‘조언 제공자’와 ‘조언 수혜자’의 역할 관계를 갖게 된다(Eggins 314). 이런 역할 관계는 분석 데이터에 포함된 1개의 의문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문 4

And if you don't like strolling on land, **why not** take a 20km canoe trip with easy portages, camping, fishing and wildlife in Nazko Lake Provincial Park?

Why not~? 형태로 된 이 의문문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는 화행(speech act)에 해당한다. 이런 질문도 역시 저자가 독자에게 ‘서비스’(조언)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명령문이나 의문문에 조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양상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도 눈여겨볼만하다. 제안은 명령문 외에도 Maybe you could....(....하실 수도 있겠지요)와 같이 양태부사나 조동사를 사용하는 평서문을 통해서도 표현될 수 있지만 분석 데이터에는 그런 식의 어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관광안내 테스트에서 직접 명령문 형태의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저자와 독자 간의 파워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양상을 사용한 평서문이나 의문문 형태의 제안은 간접화행(indirect speech ac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체면에 대한 위협(face threat)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공손 전략(negative politeness strategy)으로 분류된다(Brown & Levinson 129). 이런 공손 전략은 상대방이 나보다 파워가 높거나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가 멀 때 사용된다(Brown & Levinson 76). 그러나 관광안내 텍스트의 저자와 독자 간에는 저자가 파워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손 전략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양상표현의 사용은 저자가 제안하는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어 독자의 신뢰를 약화시키므로 관광안내 텍스트의 담화 목적에 위배된다. 다른 한편으로 양상이 사용되지 않은 직접 명령을 통해 저자가 독자와의 사회적 거리를 좁혀 친근감(intimacy)을 전달하려 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3.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 표본의 53개 문장은 전부 평서문이었다. 그리고 이들 문장 모두는 평서문의 전형적 담화 기능인 진술문의 형태였다. 평서문이 진술이 아닌 질문, 제안, 명령 등의 비전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문법적 은유’(Halliday, “Introduction” 332-341)의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즉, 모든 평서문이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동사성 구조에서도 53개 문장 중 29개에서 예문 5와 같이 ‘A는 B이다’는 식의 관계 프로세스가 사용되었다. 즉, 반 이상이 관광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을 기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뜻이다.

예문 5

- (a) 천안은 천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곳, 또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란 뜻을 가진 땅이다.
- (b) (아산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어 지역개발 잠재력과 새로운 관광지로 부각되는 지역이다.

또한 예문 6에 나온 1개 문장을 제외하곤 모든 문장에서 양상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저자의 확신을 단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예문 6

이곳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잘 알려주는 애국의 현장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표본의 모든 문장이 평서문이다 보니 영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던 명령문이나 제안을 하는 의문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도 특이하다. 이런 명령문이 부재로 인하여 영어 텍스트에서처럼 독자가 행위의 주체가 되어 무엇을 ‘보고’ ‘경험하고’ ‘해보고’하는 행위적 물리적 프로세스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적다.

우리말 표본의 이와 같은 서법 분포를 고려할 때 영어 관광 안내텍스트와 달리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독자와 저자간에 주고 받는 재화는 정보 위주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선 저자는 ‘정보제공자’, 독자는 ‘정보수혜자’로 역할 관계가 제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명령문과 의문문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근본적으로 두 언어문화권 간에 텍스트를 통해 저자와 독자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어에선 언어문화 관습상 저자가 독자에게 명령문을 통해 조언하는 것을 꺼린다는 뜻이다. 이는 관광안내 텍스트 외에 독자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의 저서에서 조언이 어떤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수궁이 가는 설명이다. 가령,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사 다이어트’(민경선 21. 20)란 책을 보면 저자가 독자에게 조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예문 7

- (a) 알코올을 과다하게 마시지 **않는다**.
- (b) 적절한 식사나 운동으로 비만을 **피한다**.
- (c)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자**.

(d) 정상 체중을 유지**하자**.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 것을 제안하는 문장이 ‘-한다’는 평서문의 형태나 ‘-하자’란 제안문의 형태를 하고 있다. “알코올을 과다하게 마시지 마라.”라고 명령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텍스트에 쓰이는 명령문이 영어권과 달리 한국어에선 독자에 대한 ‘체면 위협’으로 읽혀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V. 결 론

이상의 서법 및 양상 분석을 통해 영어 관광안내 텍스트와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 간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두 언어권의 관광안내 텍스트에선 평서문이 정보를 제공하는 담화기능을 수행한다. 이점은 특히 문장의 주체의 성격이나 특징을 기술하는데 쓰이는 관계 프로세스의 빈도가 높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두 언어권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양상표현의 사용을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즉, 대부분의 문장이 ‘이다’와 ‘아니다’는 양극의 가치를 단정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영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선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 저자가 독자에게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제안하는 담화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반해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선 명령문과 의문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두 언어권의 관광안내 텍스트 사이에는 담화 참가자인 저자와 독자 간의 역할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명령문과 의문문이 배제된 한국어 관광안내 텍스트에서 저자와 독자간의 역할관계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수혜자의 역할관계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영어 텍스트에선 이런 역할관계에 덧붙여 조언자와 피조언자의 역할관계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 표면적 차원에서 두 언어권 텍스트의 호소적 기능에서도 정도

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독자에게 어떤 장소를 방문해서 무엇을 해보라고 권하는 명령문과 의문문이 많이 사용된 영어권 텍스트가 그렇지 않은 한국어 텍스트보다 독자를 설득하는 호소적 기능에서 더 강하고 직설적이다. 그러나 각 언어권은 나름대로 장르의 목적을 실천하는 언어적 기제가 다르다고 할 때 한국어 텍스트는 많은 사실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실제로 텍스트가 독자에게 유발하는 호소적 효과는 두 언어권 텍스트에서 다 나타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도표 1에 나타난 대로 할리데이는 담화참여자 간의 관계를 텍스트에 구현하는 어휘문법적 요소로 서법(mood), 양상(modality) 및 평가(appraisal)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선 문법적 요소인 서법과 양상 사용의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국한하여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텍스트에 사용되는 평가어도 담화참여자 간의 관계와 텍스트의 호소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선 본 연구의 결과에 평가어 사용의 차이점에 관한 분석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 연구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인 용 문 헌

민경선 외. 『건강을 위한 운동과 식사 다이어트』. 서울: 학문사. 2003

Becher, Gabriele. "Advertisements In Translation Training."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Ed. Cay Dollerup & Annette Lindegaard. Amsterdam: John Benjamins. 1994. 77-86.

Brown, Penelope, & Stephen C. Levinson.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P. 1987.

Dann, Grahams. *The Language of Tourism: A Sociolinguistic Perspective*. Wallingford: CAB International. 1996.

Eggins, Suzanne. *An Introduction to Semiotic Functional Grammar*. London: Pinter. 1994.

Firth, John Rupert. *Papers in Linguistics 1934-1951*. London: Oxford UP. 1957.

Firth, John Rupert. *A Synopsis of Linguistic Theory, 1930-1955*. London: Blackwell. 1957. 1-31. (Reprinted in Selected Papers of J.R. Firth, 1952-1959. Ed. Frank R. Palmer. London: Longman. 1968. 168-205.

Halliday, M.A.K.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 London: Edward Arnold. 1985.

Halliday, M.A.K. "Language in a Social Perspective." *Sociolinguistics: A Reader and Coursebook*. Ed. Coupland & Adam Jaworski.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31-39.

Halliday, M.A.K. and Ruqaiya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P. 1989 (Originally published in 1985 by Deakin University Press).

Hjelmslev, Louis. *Prolegomena to a Theory of Language*. Madison, WI: U of Wisconsin P. 1961.

- Hymes, Dell. *Foundations of Sociolinguistics: An Ethnographic Approach*.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74.
- Lipson, Maxine. *Exploring Functional Grammar*. Bologna: Centro di Studi Linguistico-Culturali (CeSLiC). 2004.
- Malinowski, Bronislaw. "The Problem of Meaning in Primitive 'Languages.'" *The Meaning of Meaning*. Ed. Charles K. Ogden & Ian A. Richard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23. 296-336.
- Malinowski, Bronislaw. *Coral Gardens and Their Magic. Vol. 2*. London: Allen and Unwin. 1935.
- Mathesius, Vilem. "On the Potentiality of The Phenomena of Language." *A Prague School Reader in Linguistics*. Ed. Josef. Vachek. Bloomington: Indiana UP. 1964.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Theories and Applications*. London: Routledge. 2001.
- Halliday, M.A.K. and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Oxford: Oxford UP. 1989.
- Reiss, Katharina. "Text-types, Translation Types and Translation Assessment" *Readings In Translation*. Ed. Andrew Chesterman. Helsinki: Oy Finn Lectura Ab, 1977/1989. 105-115.
- Snell-Hornby, Mary. "The 'Ultimate Confort': Word, Text and the Translation of Tourist Brochures." *Word, Text, Translation*. Ed. Gunilla Anderman & Margaret Roger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1999. 93-103.
- Swales, John M . *Genre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P. 1990.
- Thompson, Geoff.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2nd Ed), New York: Oxford UP. 2004.

<분석자료>

Canadian Tourism Commission. *Canada Travel Guide 2006/7*. Vancouver, BC. 2006.

충청남도. 『자, 떠나자 충남으로』, (2007년 입수, 발행날짜 없음)

Abstract

Differences in Mood and Modality Realizations of 'Tenor'
Between English and Korean Tourist Texts

Chang-Soo Lee (Hufs)

This paper aims to analyze differences in the use of mood and modality between English and Korean tourist texts as realizations of the tenor (discourse participant relationship) in the context of situation. Theoretically, it follows register analysis methods developed within M.A.K. Halliday'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Halliday's model posits three main constituents in the Context of Situation – Field (topics and actions), Tenor (participant relations) and Mode (medium of text production). These contextual variables are linked to various choices in lexico-grammar that together make up a text. These associations between situation and text are, in turn, influenced by the Context of Culture as the outermost layer of context, giving rise to the possibility of cross-cultural variations.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English tourist texts make use of all three mood choices in English declarative, imperative and interrogative in that order of frequency, whereas Korean tourist texts are constituted predominantly by declaratives. Modality occurs on a highly limited basis in both languages. Based up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author-reader relationship in English texts can be configured on two dimensions – (1) 'information giver'-'information taker' as realized by declarative clauses and (2) 'advice giver'-'advice taker' as constituted by the use of imperative and interrogative clauses. By contrast, the relationship is practically confined to the single dimension of 'information

giver'– 'information taker' in the case of Korean texts, which makes them more oriented to 'information' and less to 'action' than their English counterparts.

Key words: Systemic Functional Grammar, Register Analysis, Mood, Modality, Tourist Texts

체계 기능문법, 담화분석, 서법, 양상, 관광안내 텍스트

논문접수일: 2008. 4. 23

심사완료일: 2008. 5. 28

게재확정일: 2008. 5. 30